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9-20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9-20
2020 년 09 월 20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094826899](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094826899)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09 월 20 일

차례

1. [그러면그원내쓰지말라]	3
2. [민주노총발“아바타집회”유감]	3
3. [같은’ 파업’, 다른잣대]	4

1. [그러면그원내쓰지말라]

2020년 9월 18일, 기안 84는네이버웹툰에연재중인'복학왕'내 표현이여성혐오적이라는논란으로인해 4주만에"나혼자산다"에출연했다. 방송에나온그는프로그램시작전자신의부족했던여성주의적감수성에대해사과했다. 같은날, 한겨레신문은"황진미의 TV 새로고침"이라는코너에"기안 84' 지키려는원내나는가치무엇인가"라는칼럼을내보냈다.

혹자는웹툰내여성혐오적표현이오프라인세상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제재해야한다고주장하나, 제재해야할것은오프라인에서벌어지는여성혐오적행위의현실이지이를표현하는비현실내개인의표현의자유가아니다. 아울러설령작품에문제가있다고하더라도이것이현실로이어진다는주장은게임을많이하면사람을죽인다는말만큼이나우스꽝스럽기그지없다.

비판할지점이한두군데가아니지만개인의표현과정작의자유를제한하려는파소적행태는구역질나며부족한점에대해진솔하게사과하는이에대한조롱은분노를일으킨다.

앞서한겨레는칼럼에서'기안 84 지키려는원내나는가치'가무엇이냐고질문했다. 그렇게질문한"황진미의 TV 새로고침"의 2020년 9월 5일자칼럼제목은"여은파'극강패션, 19금토크, 거침없는여성예능'이었다. 같은표현의자유를두고이렇게정반대의입장을표현하는한겨레역시표현의자유라는가치의보호를받고있다. 기안 84를지키려는원내나는가치란한겨레가편향된편을들수도있는표현의자유그자체인것이다. 만약이원내가그리싫으시다면한겨레는그원내를사용하지않아서도괜찮지않은가.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62757.html

2. [민주노총발"아바타집회"유감]

아래 기사를 클릭하면, 귀엽다. 솔직히 말해서요 근래에 본 노동 관련 기사 중에 가장 귀엽다. 이토록 정성스럽게 인형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아래 캡션마저 포덕심을 자극한다. 하지만 너무 귀엽다 보니 오히려 불편하다.

민주노총 서울 본부가 인형으로 대체해서 집회를 개최한 날, 타워플랜트 노동자들은 사측의 노조 파괴에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하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구속되었다. 각지의 경찰서에서

는코로나-19 상황을빌미로, 노동자들의집회신고가반려되고취소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때문에단체교섭이감감하지만, 단체행동을할수 있을지우려되어쟁의행위를하지못하는노동자들도 많다. 그리고이들또한민주노총이대변해야할조합원이다. 하지만이들에대한이야기는 < 노동과세계 > 에없다.

물론, 코로나-19 창궐이라는상황에서, 대규모대면집회를최소화하겠다는결심자체를비판하고싶지는않다. 현재상황에서의대규모집회가큰지지를얻는것이어렵다는판단도충분히가능한것이라고본다. 하지만 분명히해야할것은, 이것역시우리의자유에대한포기이자양보라는것이다.

그렇기에, 인형을세워놓고집회를개최하는것은민주노총이자랑스러워할일이라기보다는오히려부끄러워해야할일이다. 코로나-19 의창궐은분명한사회적위기다. 이상황에서민주노총이해야할일은“모든노동자의민주노총”이라는허상에목매어대면집회를없애고입법청원을하는것이아니다. “아파죽으나굶어죽으나”똑같다며거리로나올수밖에없는조합원들을찾아가고, 그들을대변해야한다.

민주노총서울본부가“아바타집회”를진행하고, 그것을자랑하는것은결과적으로목숨걸고집회를개최하다구속당한타워플랜트동지들에대한국가폭력을정당화하는것임을알아달라. 대중성과정치투쟁에함몰되고, 현장에서의투쟁을바라보지않는민주노총서울본부의“아바타집회”에유감을표한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668>

3. [같은' 파업', 다른жат대]

택배노동자들이추석연휴간에과중한노동시간에항의하며파업결의에들어갔다. 21 일부터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에서택배분류작업을전면거부한다는성명을발표한것이다. 택배노동자들은부족한인력과살인적인물류량에서달리면서그동안끔찍한노동환경속에서묵묵히일해왔지만, 이번추석에쌓여왔던분노가터진것이다.

파업이결의되자추석연휴를앞두고파업을결의한택배노동자들에대한언론보도가우후죽순으로퍼져나가기시작했다. 얼마전에대한민국에있었던가장파장이컸던' 파업' 인의사파업. 파업의요건조차도갖추지못했던, 사실상이름뿐인파업을자세하게다뤘던한국보수언론들이이번파업을어떻게다뤘을까?

아니나다를까, 보수언론을중심으로택배노동자들의파업은' 대란' 을일으키는일로서소개되었다. 특정보수언론의경우에는이러한택배파업에서의민주노총과한국노총간노노갈등이있다고선전하면서파업의정당성과그힘을약화시키고자 시도했고, 여러자극적인단어선정을통해끊임없이부정적인기류를확대재생산했다.

이는의사들의' 파업' 때는보기힘든일이었다. 그들의집단후진이있었을때에는정부의공공의료정책에무슨문제가있는지, 정부가무엇을잘못했는지에대해서자세히분석하고가능한한중립적으로바라보고자했던언론들의시선은마치신기루와같아졌다. 그들의жат대는고작한달사이에너지도빠르게바뀌었다. 과연그들의이중жат대언론으로서의올바른태도인지, 그리고자신들이그렇게비판하던' 빨갱이정부' 와다를것이무엇인지그들은곰씹어봐야할것이다.

부끄러운줄알아야한다.

[https:// biz.chosun.com/ site/ data/ html_dir/ 2020/08/27/2020082702658.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2658.html)

[https:// biz.chosun.com/ site/ data/ html_dir/ 2020/09/18/2020091801053.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8/2020091801053.html)